

보조금 경쟁 그만... 통신3사, 장기고객 테마파크로 모신다

KT, 에버랜드로 가족고객 초대
KT위즈 흥경기 관람권 응모 등 제공
SKT, 에버랜드 숲캉스 데이 열어
LG U+, 춘천 레고랜드 마라톤 행사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마케팅 축소
해킹사태 이후 이탈고객 방어 집중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장기 고객, 이른바 '집토끼' 잡기에 나섰다.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부담이 커진 데다 해킹 사고 이후 고객 유지 중요성이 부각되면서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3사가 장기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초청 행사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기존 가입 기간은 5~10년이다. 인터넷·IPTV를 결합했거나 자사 통신 회선을 꾸준히 사용한 이용자에게 참여 기회를 준다.

KT는 에버랜드에서 열리는 '초대드림'에 가족고객을 초대하고, KT위즈 흥



SKT 'T 장기고객 프로그램' 숲캉스데이. /SK텔레콤

경기 관람권 응모 기회를 제공한다. SK텔레콤은 'T장기고객 프로그램'을 통해 에버랜드 포레스트 캠프에서 숲캉스 데이를 연다. LG유플러스는 이달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에서 열리는 마라톤 행사 '레고런'을 개최한다.

지난해 단통법이 폐지되기 전에는 번 호이동 경쟁이 치열했다. 통신사들은 경쟁사로부터 고객을 빼앗아오기 위해 과도한 비용(공시지원금)을 마케팅 비용에 들였다. 여기에 일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해 '성지 마케팅'을 통한 할인

경쟁을 부추겼다. 이에 통신사의 마케팅 전략은 통신사를 변경하려는 고객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이같은 기조가 축소된 배경은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에 있다. KT는 2030년까지 500MW급 신규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는 게 목표다. 예상 비용은 최대 10조원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5조원을 들여 AI 사내회사(CIC) 조직을 출범했다. B2C AI 에이닷과 올산 AI 데이터 센터(AIDC) 등 사업을 포함한다. LG유플러스도 연간 5000억대를 투자해 익시오와 파주 AIDC 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SKT와 KT 해킹 사태 이후 이탈 고객을 방어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올해 1월 기준 LG유플러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19.6%로 2위 사업자인 KT(23.3%)와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 이후 이후 40% 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유무선 결합상품 확대도 장기 고객 전략을 강화 배경으로 꼽는다. 인터넷·IPTV를 결합해 사용하는 가입자 증가에 따라 신규 가입자 유치보다 기존 고객 유지가 중요해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중 IPTV 점유율은 2021년 54.13%에서 2025년 59.11%로 약 9% 증가했다.

다만 장기 고객 혜택 가운데 데이터 쿠폰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이동통신 시장이 사실상 데이터 무제한 중심의 정액제 구조로 재편되면서 추가 데이터 제공 혜택의 체감 가치가 과거보다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금성 자산에 대한 지출 통제는 꾸준했지만 데이터 센터와 같은 수천 억대의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특히 지출을 자제하게 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KT, 도쿄일렉트론코리아에 재생에너지 공급

직접PPA로 전력 15MW 우선 공급
이후 50MW까지 확대 예정

KT는 도쿄일렉트론코리아 주요 사업장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쿄일렉트론코리아는 국내 화성·용인·성남 등에 R&D 센터를 운영하는 일본 반도체 장비 기업 도쿄일렉트론의 한국 법인이다.

KT는 오는 9월부터 도쿄일렉트론코리아 화성사무소와 반도체 제조 공정 연구개발 센터 등 주요 사업장에 직접전력 거래계약(직접PPA)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공급한다.

직접PPA란 KT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KT 같은 에너지 공급사업자가 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기업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직접PPA는 정부가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했다.

KT는 지난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사업법상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지위를 승인받았다. 먼저 전력 15MW를 우선 공급하고, 이후 50M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재생에너지는 글로벌 고객사 수주와 전력 안정

성, 탄소 규제 대응을 위한 필수 자원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풍력·태양광과 같은 전력을 공장 운영에 활용하거나 전력수급계약(PPA)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재생 에너지 전환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선길 도쿄일렉트론코리아 기술총괄 부문장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화성에서부터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이번 협약은 당시의 지속가능성 로드맵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라며 "안정적인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온실가스감축 요구에 부응하고 국내 반도체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조민선 기자

네오위즈, 매출 1014억... 모바일·IP 성과

1분기 영업이익 70억

네오위즈가 모바일 게임 성장과 핵심 IP 흥행에 힘입어 1분기 매출 성장세를 이어갔다.

11일 네오위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기준 올해 1분기 연결 매출 101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수치다. 다만 전 분기와 비교하면 5%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줄었지만 전 분기 대비로는 48%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의 효과가 반영되며 155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실적은 모바일 게임과 핵심 라이

브 IP의 안정적인 성과가 견인했다는 평가다. 모바일 게임 부문 매출은 5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전 분기 대비 8% 증가했다. '브라운더스트2'는 2.5주년 이벤트 일부 매출 반영과 1000일 기념 이벤트 흥행 효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웹보드 게임 역시 규제 완화 영향으로 이용자당 평균 결제액이 반등했다.

PC·콘솔 부문 매출은 3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다. 다만 전 분기 대비로는 14% 감소했다. 'P의 거짓'은 글로벌 할인 이벤트 효과로 판매 흐름을 유지했고, '세이프 오브 드림즈'도 누적 판매량 100만장을 돌파한 이후 안정적인 판매세를 이어갔다. /최빛나 기자

데브시스터즈 무보수 경영·희망퇴직 고강도 전사 쇄신 돌입

데브시스터즈가 실적 부진과 시장 침체 대응을 위해 무보수 경영·희망퇴직·AI 조직 전환 등 고강도 쇄신에 나선다.

11일 데브시스터즈는 수익성 악화와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사 차원의 경영 쇄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쇄신안은 게임 시장 경쟁 심화와 라이브 서비스 운영 부담 확대, 신작 성과 부진, 기존 매출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회사는 수익성과 성장성 중심의 사업 재편과 조직 효율화, 재무 안정성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경영진은 책임 경영 차원에서 보수 삭감에 나선다. 조길현 대표를 비롯해 이지훈·김종훈 이사회 공동의장은 경영 안정화 시점까지 무보수 경영을 결정했다.

회사는 대표이사 직속 '비용 관리 TF'도 신설한다. TF는 전사 자원 배분과 비용 집행을 상시 점검하며 비용 구조 효율화 작업을 맡는다. /최빛나 기자

넥슨, AI·AX 중심 게임개발 트렌드 공유

오는 19일 '넥슨 개발자 콘퍼런스'

넥슨이 '넥슨 개발자 콘퍼런스(NDC) 2026'에서 AI·AX 중심 강연을 확대하며 게임 개발 최신 트렌드 공유에 나선다.

11일 넥슨은 게임업계 대표 지식공유 행사인 NDC 2026 오프라인 참가객 모집을 오는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NDC 2026은 오는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경기 성남시 판교 넥슨 사옥과 일대에서 열린다. 게임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게임 산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9일부터 21일까지 일자별 선착순 접수를 진행한다.

올해 행사에서는 게임 기획과 프로그래밍, 운영, 프로그래밍 등 게임 개발 전반을 아우르는 총 51개 세션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AI 분야 강연을 대폭 확대했다.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활용이 게임 개발 전반으로 확산하는 흐름에 맞춰 실제 개발 사례와 실무 경험을 공



2026년 넥슨 개발자 콘퍼런스(NDC) 이미지. /넥슨

유하는 세션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글로벌 기대작 '아크 레이더스' 개발사인 엠바크스튜디오는 AI·머신러닝과 데이터, 아트 분야 개발 경험을 주제로 총 3개 강연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넥슨과 크래프톤의 AX 전환 경험을 다루는 대담 세션 등 업계 전문가 토론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대표 세션으로는 박용현 넥슨게임즈 대표와 이경혁 게임제너레이션 편집장이 참여하는 '서로 다른 게임을 동시에 개발한다는 것', 강덕원 넥슨 그룹장과 임경영 크래프톤 VP, 김상균 경희대 교수가 참여하는 '넥슨과 크래프톤의 AX 여정' 등이 예정됐다. /최빛나 기자

LG U+, 'AI 도로 위험 관제시스템' 확대

밀리웨이와 용인특례시에 적용

LG유플러스가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공공 도로 관리 사업 확대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도로관리 솔루션 전문 기업 밀리웨이와 'AI 도로 위험 관제시스템'을 경기도 용인특례시에 확대 적용했다고 11일 밝혔다.

AI 도로 위험 관제시스템은 도로 위 포트홀과 노면 파손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수 작업까지 연결하는 도로관리 플랫폼이다. 오는 6월부터 용인시내 도로 위 철물 파손이나 동물 사체 처리 등에도 해당 서비스를 적용하고 향후 전국 지자체로 사업을 확대한다.

핵심 기술은 초정밀측위(RTX)다. 지상 기준국과 전용 단말을 실시간으로 연동해 위치 오차 범위를 최소화한다. 기존 GPS 등 위성항법시스템(GNSS)은 오차가 최대 15m까지 발생한다.

시내버스와 공무차량 등 차량에 단말을 설치해 고정형 폐쇄회로(CCTV)보다



LG유플러스 임직원이 'AI 도로 위험 관제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정확도와 관제 범위가 넓다. 카메라로 특정 지점만 감시하지 않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로 전체를 탐지할 수 있어서 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당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용인시의 도로 관련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9% 감소했다. 도로 파손으로 발생한 공익 시설 배상금도 약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민선 기자